

덕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

덕과 정!
이 말은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레서로운 말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공기처럼 흐르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쳐나는 덕과 정은 오늘날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5월 14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며 어려운 매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은 그 어떤 최신의 과학과 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응의 비결, 담보로 된다고, 모든 당조직들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도 흥내낼 수도 없는 우리의 제일가는 공산주의적미덕과 미풍이 어렵고 고요한 방역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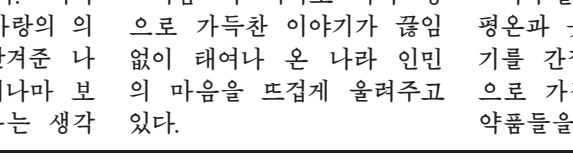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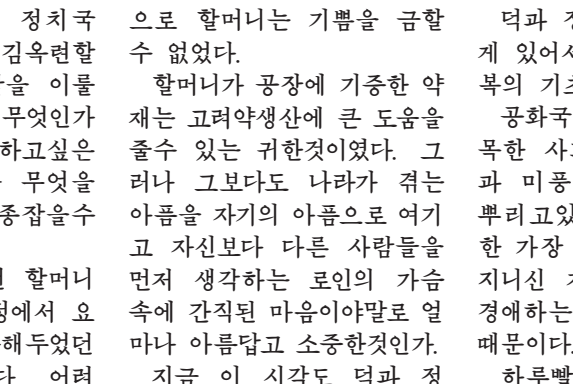
국가비상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된 지금 공화국인민들속에서 오가는 덕과 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다.

인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려이 취해지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가정에서 저축하였던 자금과 의약품, 식량과 부식물, 생활필수품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세대에 돌보아주는 아를

다른 소행을 발휘하였다.

얼마전 선교고려약공장으로서는 평양시 선교구역 선교2동에서 살고있는 김옥련할머니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고려약생산에 쓰이는 귀한 약재가 들려있는 공장이었다.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할머니가 약품생산에 써달라고 한 약재는 그만큼 어디서나 쉽게 구할수 없는 희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 것인가.
지난 5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소식에 접한 김옥련할머니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기도 무엇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중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동안 고심하던 할머니의 뇌리에 문득 가정에서 오긴하게 쓰려고 간수해두었던 고글약재가 떠올랐다. 어려운 세대라고 하며 사랑의 의약품도 제일 먼저 안겨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



으로 할머니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공장에 기증한 약재는 고려약생산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라가 겪는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가슴속에 간직된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각도 덕과 정으로 가득찬 이야기가 끊임없이 태어나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덕과 정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삶의 향기고 행복의 기초이다.
공화국이 덕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 미덕과 미풍의 화원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을 본부당위원회에 바

치신다고 하시며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의 령도자가 인민의 안녕을 지켜 가정에서 마련한 약품을 평범한 주민들에게 보내준 이 야기가 있었다.
사랑과 정,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전체 인민이 화목한 한가정이 되어 덕과 정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가꾸어가는 공화국에서는 미덕의 향기가 날로 넘쳐나고 있다.

강철남

부패한 사회 인정과 인륜이 사멸해가는 나조선에서

또한 직계가족에 의한 폭행건수는 총 6 292건, 상해건수는 총 1 598건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가정폭력과 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 의한 강력범죄행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의 경찰청이 발표한 의하면 2021년 10월 10일 10대형체가 친할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여 흉기로 수습차체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2021년 9월에는 전라남도에서 40대의 남성이 직업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70대 고령의 부모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탈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30대남성이 동거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후아바르고종에서 떨어뜨려 살해하였다.

인륜도덕의 동태대로 되어가는 남조선사회의 전변모를 보여주는 범죄사건들이다. 언론재간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돈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돈 때문에 사회전체에 부정부패가 상식화되고 일상화되었다. 누구나 할것 없이 모두 돈, 돈 하면서 산다. 권력의 자리에 타고 앉은 자들은 백성들의 돈을 자기 호주머니안에 긁어모아 사리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사회가 더러워지고 있다. 말처럼 애정파 사랑으로 뭉쳐야 할 가정과 학교, 사회는 이미 시체처럼 차가워지고 있으며 모두 돈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조장되어 이웃들간에도 칼부림이 벌어지고 지어 부모와 자식 등 혈육간에도 친구, 애인사이에도 서로 죽일대기를 하는 말세기적생활풍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사랑과 정, 인륜도덕이 사멸된 사회, 극단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차디찬고 매통스런 세상을 저주하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자살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란 찾아볼수 없는 비인간적인 사회,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 서로 물고물고 반목질시하며 몸서리치는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이런 부패한 사회에 어떻게 사람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이 있을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얼마전 우리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삼지연시인민병원을 찾았을 때였다.

이곳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는 한 여성환자의 병진단을 위해 평양의학대학병원과 먼거리의료봉사체제에 의한 협의회를 하고있었다. 알고보니 그 여성환자는 평범한 농장원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먼거리의료봉사에서의 협회과정을 지켜보았다. 화면에 비쳐진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삼지연시인민병원 의료일군들에게서 환자의 병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청취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였다.

얼마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 삼지연시인민병원 의료일군의 얼굴에도, 여성환자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어렸다. 평양과 수천리 떨어져있는 이곳에서 평범한 근로자들

이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유능한 의료진과의 항시적인 려계밀에 병치료를 하고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생각되는 것이 많았다.

협회가 끝난 후 먼거리의료봉사가 정말 좋진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소화기내과 과장은 전구적범위에서 환자들을 려결하는 먼거리의료연간 건강관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고 말하였다.

그 외 도시, 군, 리는 물론 각종 산골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물처럼 뻗어있는 먼거리의료봉사망이 형성됨으로써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현지 보건일군들과 중앙병원 의료진들과의 려계밀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우월한 먼거리의료봉사체제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므로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가.
함경북도 경성군인민병원과 평양시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은 먼거리의료협의의후 출생한지 얼마안되어 중태에 빠졌던 한 노동자의 자식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켰고 개성시의 한 소년도 시인민병원과 유류야동병원 의료일군들이 진행한 먼거리의료봉사를 받고 두번째 대지를 밟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소화기내과 과장은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 먼거리의료봉사체제가 세워져 평범한 근로자들 누구나 첨단

로봉사의 향유자가 되고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먼거리의료봉사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습니다.』

그 말을 새겨두는 첨단기술에 의거한 전국적인 먼거리의료봉사체제가 확립되어 외진 산골에 살던, 물에서 멀리 떨어진 산마을에 살던 중앙의 유능한 의료진단의 방조속에 신속히 치료를 받는 인민복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랴 하는 생각에 눈곱이 찌뻐했다.

중추적인들과 전국의 도시, 시(구역), 군인민병원들을 망라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제, 이것이야말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불같은 헌신으로 인민모두를 따듯이 품어안아주시는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후두위울랐다.
본사기자 홍범식

몇몇전 조국방문의 나날 인민사랑의 햇빛던지는 현장을 돌아보면서 받아안은 감동이 해마다 넘치지 않는다.
민중적향취가 풍기는 고대동같은 2층기와집, 십장생의 하나인 백학을 형성한 울타리, 취향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온돌침실과 침대침실, 편리하고 가정적분위가 살아나게 꾸러진 식사실, 운동실, 치료실, 영화관, 그 옛날 궁궐의 안뜰을 방불케 하는 아담한 내정과 특용우거진 공간...
손을 쬐으며 려결하는것은 어느 고급호텔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평양양로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이 이런 호화로운 집에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여생을 즐기고있었다. 복받은 그들이기에 아예 휴식차로 부럽고 배차친손이 그리울수가. 꼭 별나라에 갔다온것만 같다.
언제인가 사업상유무로 한걸음 머물렀던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하철도역과 철도역들마다 무질서하게 들었던 《지함집》들에서 추위에 떠는 로숙자들. 그런데 당국에서는 보호대책을 세우는 커녕 오히려 도시미화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강제퇴거시키고있었다. 북부조국과는 명암침례 대조되는 판이한 현실이 아닐수 없다. 고대 그리스시인 호메로스는

수천리 먼곳에서 받는 중앙병원 의료봉사



《조선사람들은 인민을 위해 한가지라도 더 많은 일을 하시려는 령도자의 모습에서 따뜻한 사랑과 헌없는 정을 느끼고 있다.》
하기에 그들은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물쳐 시련과 난관을 기어오 이겨내려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곤 한다.
령도자의 품도를 닮은 조선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룸에 살아가고 있다. 기본 일이 있어도, 불행한 일이 있어도 한가정처럼 화목하게 살아가는것이 바로 조선식사회주의이다.」
고 하면서 이런 사랑의 힘, 덕과 정, 정에 떠받들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의 조진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꽃을 피워 꽃이 피는 곳마다 사회주의의 강주건설에 매진하고있다고 했다.
『공고신문 《리 빠트리오트》는 조선의 국공을 룬할 때 먼저 꼽아야 할것은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국가정치가로서뿐 아니라 자기 운명을 맡긴 친아버지로, 은인으로 따르고 열렬히 존모하고있다. 조선의 국공에서 특이한것은 서로 위해주는 사회적풍조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밑에 아름다운 미풍들이 날마다 꽃피고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기적과 변혁은 이 나라의 특이한 국공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전화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전반적무상치료제

공화국에서 평화시기도 아닌 전쟁시기도 채택하지 못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세인을 놀라운 경이적인 사변이었다.
한훈의 자금이러도 전생승리에 달려야 할 때에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니 철세위인 한민이 뜨거운 인민사랑때문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서 병원들을 세우고 근거지인민들에 대한 무상치료를 하도록 하시었으며 해방후에는 려사적인 《20개조실감》에서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밝히시고 1947년부터 노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공민들에게 국가부담에 의한 무상치료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빛나게 실현되도록 현명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었다. 그리하여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수 있는 제반조건이 성숙되었으며 병원들의 침대수는 전쟁전의 2배이상으로, 외래치료기관수도 전쟁전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토대하여 1952년 11월 13일 내각결정 제203호 《인민들에게 무상치료를 실시할데 대하여》가 세상에 공포되었으며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공화국인민은 병치료에 대한 고심 걱정을 모르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에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 현명하게 이끄셨다.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자립적민중경제의 토대가 든든히 마련되었으며 보건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된 시기인 1960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여 오던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가 될데 대하여가 세상에 공포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서는 인민들에게 주는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높이

본사기자 림광훈

황홀한 궁전의 주인들

장편서사시 《일리아스》에서 이렇게 썼다.
고아란 빛도 없어
뻘은 눈물에 젖고 눈은 내리갈려 ...
치량한 그 시구절이 불현듯 생각나는것은 조국에서 받아들인 또 하나의 이른 감동때문이었다. 조국방문기간에 꼭 가보고싶었던 곳들중의 하나가 육아원과 예육원이었다.
인류사와 더불어 불행의 대명사로 되어왔고 오늘도 방랑의 동여되어 되고있는것이 고아이며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고있는 난문제도

황홀하기 그지없는 궁궐같은 요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름 못할 감동속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나같이 영양과 발육상태가 좋고 얼굴에 그늘 한점 없이 뛰어난 고아들은 원아들을 깨면서 여기 와보기를 권해주며 정경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들었다.
재민총수들의 별장도 울고갈 이런 눈부신 궁전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라니, 직접 보지 않았다면 백

한 고아문제이다.
조국방문기간 품치스러운 대동강변에 위치한 평양육아원, 예육원은 물론 원사육아원, 예육원에까지 찾아가보았다.
황홀하기 그지없는 궁궐같은 요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름 못할 감동속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나같이 영양과 발육상태가 좋고 얼굴에 그늘 한점 없이 뛰어난 고아들은 원아들을 깨면서 여기 와보기를 권해주며 정경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들었다.
재민총수들의 별장도 울고갈 이런 눈부신 궁전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라니, 직접 보지 않았다면 백

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빠르게 잘 키우자고 하시며 이렇듯 궁전같은 육아원과 예육원을 마련해주셨다는 것이었다. 더우기 육아원, 예육원에 잇달아 양로원을 건설하도록 하시어 무의 무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외로움까지 가셔주시었다고 하니 얼마나 정경이 좋고 살뜰하고 세심한 사랑의 세계인가.
태양의 열과 빛에도 한계가 있어 음지와 동토대가 있지만 정애하는 조국위원장님의 사랑에는 음지도 동토대도 없다. 자식이 없어도 외로움을 모르고 부모가 없어도 실음을 모른다는 말은 성경이나 신화에 없다.
인민이 사는 별나라이다. 정말 조국위원장님 부럽고 그들이 누리는 락이 신비스럽기만 하다.
재미동포 김지영

<<조선 특유의 가장 위력한 정치적 무기>>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인다스트리》



평양육아원과 평양예육원